



극동러시아 동향 리포트

Contents

- 통계로 본 이슈
 - 지난해 러시아 북극지역의 항만 물동량, 26.4% 증가
- 이슈페이퍼
 - 러 부가가치세 20% 인상...새로운 사업전략으로 적극 대응해야
- 극동러시아 주요 동향
 - 블라디보스토크 여항이 처리한 2018년 총 화물량은 454만 톤으로 전년 대비 14% 증가
 - 러시아, 아시아 시장 공략위한 LNG 복합단지 건설에 관심
 - FESCO, 중국 이우~러시아 모스크바 구간 컨테이너 열차 운송 서비스 시작
 - 바니노 항, 벌크화물 취급 신기술 도입
- 주요 통계
 - 2018년 1~11월 연해주 지역 주요 수출입품 구조



한국해양수산개발원
KOREA MARITIME INSTITUT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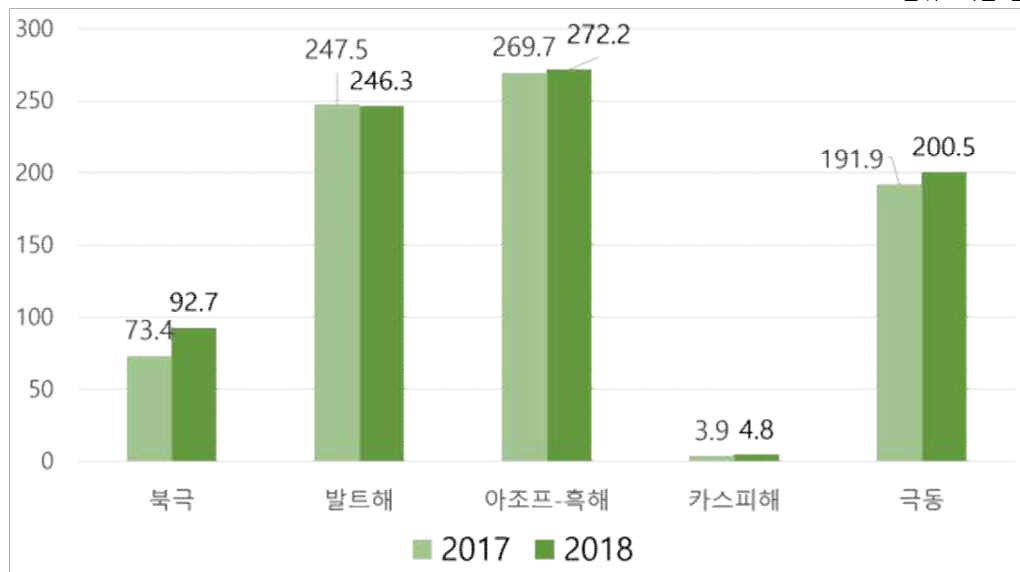


통계로 본 이슈

지난해 러시아 북극지역의 항만 물동량, 26.4% 증가

러시아 지역별 항만 물동량(2017~2018)

단위: 백만 톤



자료: <http://www.morport.com/rus/content/statistika>(검색일: 2019년 1월 29일)

- 2017년 러시아 북극지역 항만물동량은 약 7,340만톤이었으며, 2018년에는 26.4% 증가한 약 9,270만 톤을 기록함
 - 건화물은 약 3,040만톤으로 3.4%, 액체화물은 6,230만톤으로 41% 증가함
 - 2018년 무르만스크 물동량은 총 6,070만톤(+18.1%), 아르한겔스크는 280만톤(+15.5%), 바란데이는 700만톤(-15.3%)을 기록함
- 2018년 북극지역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약 16만TEU로 6.7% 증가했음



- 수출 컨테이너는 385TEU로 51.1% 감소한 반면, 수입 컨테이너는 2,900TEU로 19%, 연안은 15만 7,000TEU로 6.9% 증가했음

- 이처럼 북극항만 물동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해 북극항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 따라 러시아교통부 산하기관인 Rosmorrechflot은 북극항로 개발계획을 발표했음
- 북극항로 인프라 운영권을 소유한 'Rosatom'은 인프라 개선사업에 총 1,737억루블(약 26억달러)의 예산이 필요하며, 북위도 루트¹⁾ 건설사업에는 2,359억루블(약 36억 달러), 연방 프로그램인 '항만', '북극항로 프로그램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프로그램'에는 총 1,696억루블(약 26억 달러)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함

■ 참고자료 : http://www.morport.com/sites/default/files/inline/files/basseyny_napravleniya_12_2018_g.pdf(검색일: 2019년 1월 29일)

<http://infranews.ru/logistika/more/53542-gruzooborot-morskix-portov-arkticheskogo-bassejna-v-2018-godu-vyros-na-264/>(검색일: 2019년 1월 29일)

<http://infranews.ru/logistika/more/53539-na-razvitie-sevmorputi-potrebuetsya-bolee-900-mlrd-rub/>(검색일: 2019년 1월 29일)

김엄지 연구원

051-797-4776, umjikim@kmi.re.kr

1) 러시아 북극 지역에서 북부철도-스베르들롭스크 철도가 야말지역의 사베타 항만과 연결되는 운송로



이슈페이퍼

러 부가가치세 20% 인상...새로운 사업전략으로 적극 대응해야

- 2019년을 맞아 러시아에서의 가장 큰 이슈가 '부가가치세(VAT) 인상'으로 모아지고 있음
 - 올해 1월 1일부터 부가세 인상 법안이 발효되어, 종전 18%에서 20%로 새로운 부가세율이 적용됐음
 - 특정세율을 받는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 사실상 러시아에서 사용하는 모든 재화서비스의 VAT가 20%가 되는 것임
 - 지난해까지 러시아에서의 VAT는 기본적으로 18%이며, 특정 식료품, 유아용품, 의료기기, 정기간행물 등은 10%를 적용받았음
- 러시아 정부는 앞으로 VAT 인상으로 증가되는 세수는 의료보건, 교육, 인프라 등 사회복지인프라 확충에 지출한다는 입장임
 - 결과적으로 정부의 국정과제수행을 위해 부족한 약 8조루블 규모의 재원 증세를 통해 확보한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로 해석됨
- 새로운 VAT 세율이 발효된 올해 초 러시아 시장에서는 공산품, 서비스 등 업종 제한없이 전 품목의 가격들이 일제히 오르고 있음
 - 러시아 서민들의 소득수준은 전년과 같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,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며 정부의 이번 증세정책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기하고 있음
 - 전문가들은 앞으로 모든 업종에서 평균 5% 이상의 물가인상을 전망하고 있으며, 그 속도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함



- 공급업체인 기업들의 목소리에 따르면 시장에서의 물가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나,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지가 관건으로 보임
 - 지난해 러시아 하원 두마는 부가세 인상법안 채택 전 기업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, 대기업 80%가 VAT가 인상되면 어쩔 수 없이 제품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었음
- 결국 VAT 인상은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러시아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것으로 보임
 - 러시아 중앙은행은 올해 인플레이션을 5.5%로 전망했지만, VAT 인상으로 이 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
- 정부의 증세에 반해 러시아 국민의 실질소득 증가는 거의 미미할 것으로 보여 실물시장에서의 반응에 러시아 시장 전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임
 - 녹록치 않은 서민경제가 계속되며 올해 러시아 시장에서는 저가제품이 시장에서 주목받을 것으로 보임
- 품질보다는 가격중심 시장으로 전환되며 치열한 가격경쟁이 예상되는 것이 최근의 시장상황임
 - 물가상승은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임금감소, 신용하락 등으로 이어지며 금융권의 가계대출 제한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임
 - 이 요인들은 곧 구매력 둔화를 견인하며 먼저 외식, 여행, 문화생활, 고가품의 소비를 억제할 것임
- 여기에 더해 환율까지 올라 러시아 소비자들의 지갑을 더욱 닫게 만들고 있음



- 2014년 유가하락 및 대러 제재로 인한 루블화 가치의 불확실성이 러시아 시장의 악재요인으로 상존하고 있음
- 2017년 루블화는 달러 대비 58~59루블 수준으로 잠시 안정화 국면에 접어드는 듯했으나, 2018년 매 분기 환율이 상승해 2018년 9월 달러당 70.6루블로 최고 수준에 도달함
- 향후 미국이 추가로 경제제재를 가할 경우 금융권의 자금 유동성 문제로 루블화 평가절하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
- 식료품 시장을 시작으로 앞으로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생활용품 시장의 유통 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됨
 - 물가상승 및 루블화 평가절하라는 이중고가 당분간 지속되며 러시아 소비자의 실질구매력이 감소될 것으로 보임
 - 이에 러시아 서민들의 가장 실질적 의식주인 식품시장부터 저가제품들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임
- 실질소득이 줄어든 반면 물가는 큰 폭으로 오르며 서민들은 가격이 싼 제품을 찾을 것이며 결국 러시아 식료품 유통구조에 적잖은 변화가 올 것임
 - 유통시장의 대형화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며, 결국 소비자들은 착한 가격을 찾아 온라인 쇼핑몰 또는 대형마트를 찾게 되며 골목상권의 입지는 더욱 축소가 될 것으로 예상됨
- VAT 인상으로 큰 변화가 점쳐지는 올해 러시아 시장에서는 새로운 사업전략이 필요한 시점임
 - 무엇보다 한국에서 수출하고 장부에 기록하는 단순 트레이딩 교역보다는 현지에 직접 진출하는 전략이 필요함
 - 현지화 사업으로 축적된 역량을 활용할 경우 우리 기업들은 러시아시장에서 더욱



강한 경쟁력을 만들 수 있을 것임

- 지금까지 한국의 대러시아 교역은 소수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구조로 이루어져 왔음
 - 특정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에서 러시아 시장에서의 성공 사례가 미비했다고 할 수 있음
 - 특히 자동차, 자동차부품, 합성수지, 가전, 중장비 등의 제품군은 항상 대러 전체 수출의 과반이 훌쩍 넘는 수치를 보였음
- 무엇보다 대러 수출의 품목다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임
 - 전통적 교역상품 외 새로운 상품개발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며 이번 VAT인상을 계기로 우리 기업들이 대러 수출전략을 다시 짜는 계기가 돼야 함
- 어려울수록 시장에서 곳곳하게 버티고 있어야만 상황이 호전될 때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 곳이 러시아시장인 만큼 우리 기업들의 대러 수출여건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
 - 또한 지금까지의 시장행태를 보면 러시아 시장은 어렵다고 잠시 빠졌다가 사정이 좋아져 다시 들어왔을 때 100% 외면당하는 전형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
- 또한 현지화사업의 교두보를 구축해야만 미래를 볼 수 있는 곳이 러시아 시장이므로 기업들이 '위기'를 현지화 사업의 '기회'로 보는 보다 창의적인 사업구상이 필요한 시점임



■ 참고자료 : <https://tass.ru/ekonomika/5957988>(검색일: 2019년 1월 21일)
<https://ria.ru/20190101/1548961683> (검색일:2019년 1월 23일)
<https://www.interfax.ru/business/647055>(검색일:2019년 1월 24일)

전명수 현지리포터(국립블라디보스톡경제서비스대)

070-5044-9502, msjeon1976@gmail.com



극동러시아 주요 동향

블라디보스토크 어항이 처리한 2018년 총 화물량은 454만 톤으로 전년 대비 14% 증가

- 2018년 블라디보스토크 어항(Vladimorrbport OJSC)이 처리한 총 화물량은 전년 대비 14% 증가한 454만 톤을 기록했음
 - 컨테이너 18만 2,574TEU(전년 대비 16.3% 증가), 어류 33만톤(동 21.4% 증가), 금속 스크랩 44만 700톤(동 8.5% 증가) 등
 - 벌크 건화물 환적화물은 건설화물 9만 7,000톤 획득으로 21만 8,000톤 기록
 - 동년, 블라디보스토크 어항은 5만 4,946대의 철도차량(전년 대비 8% 증가) 및 844척의 선박(동 6.8% 증가)을 처리했으며, 성수기에는 선박 8척을 동시에 하역 처리
- 블라디보스토크 어항 JSC는 졸로토이 로그 베이 남쪽 해안에 위치한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항구 중의 하나로 컨테이너 20만TEU 이상을 포함 연간 500만 톤의 하역처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
 - 부두는 10개 선석(연장 2,020m)



- 10km의 철로와 기관차 3대를 이용하여 1일 평균 71회 처리 가능

블라디보스토크 어항의 하역 처리 현장



자료: <https://steelguru.com/logistic/vladivostok-sea-fishing-port-handled-4-54-million-of-cargo-in-2018/531814> (검색일: 2019년 1월 29일)

■ 참고자료 : <http://en.portnews.ru/news/270756/> (검색일: 2019년 1월 29일)

한성일 부연구위원

051-797-4781, han@kmi.re.kr



러시아, 아시아 시장 공략위한 LNG 복합단지 건설에 관심

- 러시아 최대 LNG 생산 업체가 극동지역의 설비를 개선해 급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시장을 공략할 계획임
 - 노바텍은 아시아 시장에 LNG를 공급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
 - 또한 가스프롬(Gazprom)사는 올 12월 시베리아 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해 중국에 가스를 공급할 예정임
- 현재 유럽 가스시장의 1/3을 담당하고 있는 러시아는 향후 아시아 지역으로까지 LNG 공급량을 증대시킬 계획임
 - 이런 계획은 유럽 시장에 공급되는 가스량을 유지함과 동시에 중국을 시작으로 아시아의 LNG 공급을 담당하고자 하는 것임
- 노바텍(Novatek)은 야말(Yamal)에 1개의 LNG 플랜트를 보유하고 있으며, 올해 북극(Arctic) LNG 2의 최종 투자 결정(Final Investment Decision·FID)을 목표로 하고 있음
- 노바텍은 최근 일본의 Saibu Gas사와 사전 계약을 체결해 아시아 LNG 시장 진출을 위한 잠재적 협력을 고려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
 - 노바텍은 Saibu Gas사의 일본 Hibiki LNG 터미널을 이용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의 LNG 공급을 최적화할 예정임



- 노바텍 부회장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자사의 LNG 프로젝트에 있어 최우선 순위 목표 대상이었다고 언급함
 - 또한 일본 히비키(Hibiki) 터미널을 활용해 자사의 고객 기반을 다양화함과 동시에 프리미엄 LNG 시장에 대한 배송의 유연성을 증가시킬 예정이라고도 밝힘
- 노바텍은 러시아 정부의 지원 하에 아시아 시장과 근접한 극동 캄차카(Kamchatka) 반도에 해양 LNG 환적 복합단지(transshipment complex)를 건설할 계획임
- 노바텍 관리위원회장은 캄차카 환적 복합단지 건설을 통해 물류가 최적화 될 수 있으며, 이는 곧 북극 지역에서의 LNG 운송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 언급함
 - 노바텍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소비자를 위해 러시아 LNG 허브를 건설할 계획이며, 이 투자를 통해 북극 항로 개발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
- 또한 노바텍은 LNG를 아시아 시장에 보급하기 위해 LNG 허브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며, 이는 곧 아시아 지역으로의 운송비용 절감 및 배송의 유연성 증대 효과를 동반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

■ 참고자료 : <https://www.rt.com/business/449010-russia-lng-island-east/>(검색일: 2019년 1월 28일)

신수용 전문연구원

051-797-4780, shinsy@kmi.re.kr



FESCO, 중국 이우~러시아 모스크바 구간 컨테이너 열차 운송 서비스 시작

- FESCO 그룹은 올해 1월 11일 중국의 저장성 이우(Yiwu)에서 몽골을 경유해 모스크바까지 이어지는 컨테이너 열차 주간 운송서비스를 시작함
 - 총 운송 시간은 14일이며, 동 열차는 러시아의 나우시키(Naushki) 및 중국과 몽골의 국경 도시인 얼렌(Erlan)과 자민우도(Zamyn-Uud)를 경유함
 - 동 서비스는 중국에서 한 달에 400~500TEU의 화물을 운송할 계획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 냉동 컨테이너 운송을 추가 할 계획임

FESCO 컨테이너 운송 열차



자료: www.freightweek.org(검색일: 2019년 1월 14일)

- 극동지역 전문 물류회사로 알려진 FESCO社は 2016년에 텐진(Tianjin)~모스크바 컨테이너 열차 운송을 시작함으로 중국과 러시아 간 컨테이너 운송 서비스를 개시한



바 있음

- 또한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(Krasnoyarsk)에서 카자흐스탄을 경유해 중국 청두(Chengdu), 쓰촨(Sichuan), 서안(Xian), 산시(Shaanxi) 까지 화물을 운송하고 있음

■ FESCO 그룹은 극동 지역의 항만, 철도 등 복합운송 서비스를 하는 대표적인 기업임

- 동사는 러시아 대부분 지역에 선박,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, 약 5만대의 차량 및 60만 TEU의 컨테이너 처리 능력을 가진 블라디보스톡 항만 터미널을 보유하고 있음

참고자료 : <https://www.freightweek.org/index.php/en/latest-news/85-rail/3869-fesco-first-container-train-arrives-in-moscow-from-yiwu>(검색일: 2019년 1월 15일)

김병주 연구원

051-797-4674, bjkim17@kmi.re.kr



바니노항, 벌크화물 취급 신기술 도입

-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입주기업인 ‘로드지스틱(СП ВЛ ЛОДЖИСТИК)’사가 철도운송에서 벌크화물을 효율적으로 적재하기 위한 신기술을 도입함
 - 이번 투자 프로젝트는 극동개발공사의 동의하에 진행되었으며 투자금액은 약 650만루블로, 새로운 일자리는 약 43개가 창출됨

‘로드지스틱’사의 화물 적재 및 운송



자료: <https://minvr.ru/press-center/news/20758/>(검색일: 2019년 1월 28일)

- 블라지미르 노보크소노브 ‘로드지스틱’사 대표는 본 기술은 특허를 받았고 강수와 습



기로부터 벌크화물을 보호하며 현재 바니노항에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강조함

- '로드지스틱'사는 바니노항에서 알루미늄을 적재한 후 러시아 중앙지역에 위치한
공장으로 운송함

- 또한 이번 기술은 화차의 화물 적재를 위한 이동을 최소화하여 전체 프로세스의
효율성을 높이고 있음

- '로드지스틱'사는 지속적인 철도운송 연구개발 및 투자를 통해 금속, 화학, 농업
및 기타 산업분야에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

- 현재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에 투자될 총 금액은 약 5,915억루블이며 새로 창
출될 일자리는 약 61,000개임

- 이 중 프로젝트 실행으로 투자된 실제 금액은 약 540억루블이며 약 6,590명의 새
로운 일자리가 창출됨

■ 참고자료 : <https://minvr.ru/press-center/news/20758/>(검색일: 2019년 1월
28일)

김은미 현지 리포터(국립극동교통대학교)

051-797-4776, usea1004@gmail.com



주요 통계

2018년 1~11월 연해주 지역 주요 수출입품 구조

(단위: 천 달러)

상품명	2018.01.01. ~ 2018.11.30					
	합계		해외		CIS	
	수출	수입	수출	수입	수출	수입
합계	3,021,144.7	3,759,994.5	3,013,025.0	3,724,783.3	8,119.8	35,211.2
식료품 및 원자재	1,378,310.9	637,276.5	1,375,833.0	630,964.8	2,478.0	6,311.3
광물	636,936.1	46,330.8	636,315.3	46,255.5	620.7	75.3
연료 및 에너지	560,261.6	45,173.9	559,640.8	45,107.8	620.7	66.1
고무 및 화학 제품	38,477.6	417,290.2	37,291.9	411,714.8	1,185.7	5,575.4
원료, 모피 제품	16.4	14,000.2	9.0	13,665.9	7.4	334.3
목재 및 펄프, 종이 제품	390,851.0	64,698.3	390,836.4	63,546.8	14.6	1,151.5
섬유 및 신발	1,320.6	216,299.9	654.5	211,887.4	666.1	4,412.6
금속 및 금속 제품	198,982.7	263,629.3	198,742.4	255,694.0	240.3	7,935.3
기계류	285,160.7	1,830,440.5	282,964.3	1,824,158.8	2,196.4	6,281.7
기타	91,088.8	270,028.7	90,378.0	266,895.3	710.8	3,133.4